

※ 아래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전봉준 장군이 쌓치면 피노리에서 잡혀 사형될 때까지의 과정을 순서 없이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고 자기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 팁

- ▶ 이 내용을 기자가 되어 기사문으로 작성해보기 (육하원칙 고려)
- ▶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 편지로 써보기
(전봉준, 김경천, 전봉준을 끌고 가는 관군, 재판관, 전봉준 아버지 전창혁 등)
- ▶ 이 내용의 사건이나 인물을 문학으로 표현해 보기 (시, 수필, 소설 등)
- ▶ 이 내용의 사건이나 인물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4컷 만화, 만평, 카드 뉴스 등)
- ▶ 이 내용을 읽고 해당 사건이나 인물을 반박하거나 비판해보기
- ▶ 아래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여러 장르로 표현해 보기
- ▶ 기타 자신이 독창적으로 재구성해보기

전봉준 장군은 1894년 11월 9일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2만여 농민군과 반외세와 반봉건을 외치며 싸웠지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군과 일본군이 합세한 전투에 맞섰지만 근대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전봉준 장군은 살아남은 농민군 3천여 명을 후퇴시키고 11월 말에 원평과 태인에서 다시 관군과 맞서 싸웠지만 대패하고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전봉준을 체포하거나 숨어 있는 곳을 신고한 자는 크게 포상한다는 벽보를 붙여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전봉준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입암산성을 거쳐 백양사에서 잠시 숨어 지내다가 순창군 쌓치면 피노리로 피신하였습니다. 이곳은 전봉준 장군의 옛 부하였던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천은 현상금에 눈이 멀어 전봉준 장군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관군에 밀고하여 결국 이곳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순창 관아에 갇혔고 이튿날 일본군에 인계되어 나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체포 당시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부상이 매우 컸습니다.

나주에서 한양으로 압송된 전봉준 장군은 일본 영사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습니다. 3월 29일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최후 진술에서 “일본 병을 물러나게 하고 악하고 간사한 관리를 축출하여 임금 곁에서 깨끗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하게 하고 나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에 종사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양반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 백성들의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이때 고부에서 조병갑이라는 군수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앞장서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민들과 합세하여 부패 척결과 내정 개혁 등을 내세우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의 의견이 중앙에 직접 반영되는 새로운 정치 개혁을 꿈꿨던 전봉준 장군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봉준 장군은 1855년 고창 당촌 마을에서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맡기도 하고 서당 훈장을 하여 전봉준 장군도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키가 작아서 ‘늑두’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봉준 장군이 쌓치면 피노리에서 체포되어 순창으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자신이 느낀 바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해 보십시오.